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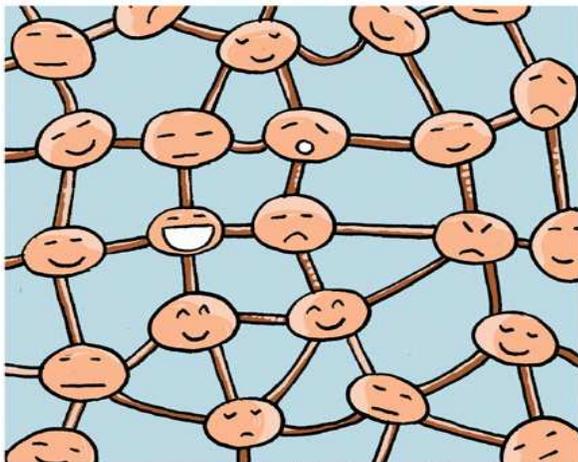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 금, 토 오전 7:30 화, 목 오후 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때로는 나의 작은 배려가
 그를 꽃처럼 피어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1독서] 1사무 3,3-10.19
 [화답송] 시편 40(39), 2-7과 4-7, 8-9, 10(◎ 8과 9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독서] 1코린 6,13-15, 17-20
 [복음 환호송] 요한 1,41.17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요한 1,35-42

성가	8시 미사	입당 39	봉헌 217 219	성체 161 165	파견 68
	11시 미사	입당 39	봉헌 217 219	성체 161 165	파견 68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주일(1월 18일)		연중 제 3주일(1월 25일)		연중 제 4주일(2월 1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애리스텔라	3구역:김미숙말가리다	정일환프란치스코	4구역:권창모미카엘	채성일토마스	1 구역
제 1 독서	정일환프란치스코	3구역:이건호요한	채성일토마스	4구역:허순구라우렌시오	강신호요한	1 구역
제 2 독서	정영희글라라	3구역:문아영유스티나	정애리스텔라	4구역:허옥진파비올라	김영선안젤라	1 구역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2015년은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입니다. 사람이 양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약 1만 년 전으로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서 유목민들에 의해 가축으로 길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羊)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내심 많고 어질고 순박한 동물로 통합니다. 성질이 온순해 우리를 지어 살면서도 우위 다툼을 하지 않고, 반드시 가던 길로 되 돌아오는 정직성이 많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일단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띠는 부자가 못 된다’는 속담은 양처럼 너무 정직하고 정의로워 부정을 참지 못하는 맑은 성품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첫 부분에서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羊)으로 소개합니다. 어린양은 속죄양(贖罪羊)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의 속죄(贖罪)를 위해 이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탈출과 더불어 해방과 파스카의 체험(탈출 12)을 통해 어린양(羊)을 하느님께 번제로 바쳐 죄의 용서(레위 4, 32, 35)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양’은 하느님 백성을 위한 해방절 동시에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양이 아니라, 번제로 바쳐질 이사악을 대신한 어린양처럼 하느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어린양(창세 22, 13)으로서, 우리의 병고와 고통을 대신 지고 우리의 사회적 악행과 죄악 때문에 자신을 속죄제물(贖罪祭物)로 내어 놓는 “주님의 종” (이사 53)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어린양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중재자로 인간 역사 안에 깊이 들어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분과 일치를 통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1요한 3, 5-8)

작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며, 신앙인들은 “여인이 젖먹이를 설령 잇는다 해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사 49, 15)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모습은 신앙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복음의 기쁨 198항)의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 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다운 목자의 좋은 모범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교황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가난한 이들의 사회통합(복음의 기쁨 186항)과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윤석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환경 노동사목부국장

16 = 3+1+2+10

생명의 말씀

1.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요한 1,39) 지금도 제게는 작년 11월에 폴란드 쳉스토호바(Czestochowa)를 순례하면서 ‘검은 성모님’의 제막식 때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감격이 생생합니다.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면서 밤새 은으로 장식된 덮개로 가려져 있었던 성모님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 돌로 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모님을 향하고 있던 제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날 새벽 6시에 ‘검은 성모님’은 제 마음에 ‘내 어머니’로 뜨겁게 오셨습니다.

2. “무엇을 찾느냐?” (요한 1,38)

오늘 제1독서는 어린 사무엘이 사제 엘리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고 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줍니다. 사실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1사무 3,10)하며 ‘듣는’ 태도가 더 먼저 필요합니다.

3. “와서 보아라.” (요한 1,39)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곧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달 24일 성탄 밤 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찾아내시어 사랑스럽게 어루만지실 수 있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오후 네 시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던 곳에서 함께 머물렀던 제자들이 기억하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난’ (요한 1,41 참조) 체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3]일체[1]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두[2] 가지 신비(부활과 성탄)를 십계명[10]에 따라 사는 충실한 일상 가운데 만나는 은총들이라고 말합니다.(16 = 3+1+2+10)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성」에서 ‘하느님은 최고의 진리이시고, 겸손이란 진리 안에 걷는 것’이라며 자신의 신비체험을 정리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묵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 (1코린 6,19 참조)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묵는’ 일상의 체험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연정신부
절두산순교성지 주임



암흑 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빛줄기처럼
이 모진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흘린
오직 당신만 아시는 수많은 눈물들처럼
어둠을 이기고 희망의 새벽을 부르는 사랑

글·정지원 루치아 / 그림·구민정 엘리사벳

그래서 저는 오후 네 시쯤[16]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곧 삼

말씀의 향기

내 하루의 증언

요즘같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어 저도 건강이라면 눈을 번쩍 뜨고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건강식품도 사고, 사실 식사도 나름으로 즐긴다는 것을 먹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 기복이 심한 저는 그 쌓아놓은 건강을 한순간 확 털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배탈이 나고 어지럽고 근육도 아프고 관절 통증으로 삶이 무겁기만 하지요. 그러면 정신까지 나약해져 무엇을 잡고 무엇을 기대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지면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자학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가장 미안한 분이 주님입니다. 나름으로 새벽 미사를 드리며 주님의 피와 살을 제 몸으로 받는 영성체의 거룩한 체험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 아닙니까.

내 몸속에 주님을 모시는 또 하나의 성전으로 내 몸을 거둬나게 하는 것이라면, 머릿속과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의 힘을 얻어야만 주님을 섬기는 약속이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를 집어던지는 순간에 주님을 던지는 것이라고 내가 나에게 속삭이지만, 감정 기복은 또 쌓아 놓은 귀한 언약을 확 털어버립니다.

저는 성체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적어도 주님과 약속에 난폭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딸이라는 증언이 살아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언젠가 내 삶의 바통을 넘길 때 저도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내 일상의 증언이 어깨에 맨 주님의 뜻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끌고 가는 지구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새해 첫날 흔한 꽃 화분 하나를 사고, 이름을 ‘오늘’ 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을 기도처럼 성실히 살아보려고, 오늘을 딸들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오늘은 즐기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견디며 극복하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요. 오늘의 또 다른 이름은

극복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손을 놓아버리려는 사람에게 극복 인자만은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법이니까요.

그 길은 저같이 연약하고 게으르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에게겐 너무 먼 길이지만, ‘에라!’ 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견디는 내성이 강한 하느님의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이기는 극복 정신도 의무입니다. 오늘의 극복 의무는 마음을 울아매는 일상의 멍에가 아니라 안식이 되고, 하느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갈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모든 일에 조신하게 몸을 낮추고 믿음에서는 키를 높이는 신앙적 정진이 내 삶의 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치의 증언에 최선의 약속으로 내일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달자 엘리사벳
시인

성경산책

성경공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책이므로 우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산책에서 매주 복음과 독서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는 것보다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그 배경을 잘 안다면 성경의 이해와 흥미에 도움이 됩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우선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성조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지역은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다양한 기후와 지형, 복잡한 인종과 언어, 다양한 풍습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교차로이고 완충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늘 열강의 틈 속에서 고통과 수난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동서고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역사를 가진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후 70년 로마제국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135년 유다인의 마지막 독립전쟁의 참패로 완전히 패망하여 세계사의 뒤편길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수난의 역사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도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시대와 생활환경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나는 너를 ()이 되게 하고, 너에게 ()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창세12,1-9참조)

♥ 아래의 성경을 찾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노트에 써 보세요.

탈출11,1-10/무카1,26-39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월 1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임레지나
	연	김방지거/바오로/아오스딩	김데레사(정복)
	연	김라파엘/요셉	김데레사(정복)
	연	송토마스(태완)	안마리아(은순)
	연	조바오로(병철)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이영호 기일	김케네스 가족
	생	대자녀들	유데레사
	생	자녀들	정스텔라(애리)
	생	조요셉(승구)	조데레사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조야고보	조데레사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박세실리아(미숙)	김데레사(정복)
	생	리아네스(명란)생일	영파트리샤
	생	리아네스(성숙)축일	김아네스(순이)
1월 23일 금	생	김아네스(순이)축일	익명
1월 24일 토	생	심데레사/서데레사	성령기도회
	생	전아네스/방아가다	전데레사(윤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100	189	-	289
헌 금	\$619	\$1,170	-	\$1,789

< 교무금 > \$3,410

김영순(1) 정병구(1-2) 정지문(1-2) 정지오(1-2)
 김상실(1-2) 유제청(1) 이세호(11-12/14) 김정복(1)
 최환준(8-12/14, 1) 채용분(1) 김관숙(1) 남금지(1)
 최상철(1) 정경희(1) 민기정(1-2) 소명환(1-2)
 이완수(1-2) 황현숙(11-12/14) 조진행(1) 변귀태(1)
 조승구(1-2) 이선희(1) 박일신(1) 박영자(1-10)

< 성소후원금 > \$360

정병구(1-2) 강수영(1-12/14) 김정복(1) 채용분(1)
 소명환(1-2) 조진행(1) 변귀태(1-6) 이선희(1-2)
 박일신(1)

< Bishop's Appeal > \$50

조진행(1) 변귀태(1)

< 감사헌금 >

강시구 \$200 조승구 \$100

< Raffle Ticket 판매금 > \$942

~~~~ 오늘 간식은 이종규 미카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오늘 미사는 몬트레이 한인성당의 채홍락 시몬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본당의 미사를 위해 와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님봉헌축일(2월 2일)을 맞아 초축복 예식을 2월 1일 교중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1년 동안 전례에 사용될 초와 전례용품을 봉헌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복해 드립니다.

\* 감실초/제대초 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1월 22일(목)까지 본당신부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2차 헌금

오늘 Seminary(신학교) 후원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2월 8일 교중미사 중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사진반 : 1월 1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탁구 대회

일시 : 1월 19일(월) 오후 4시

\* 저녁 식사 후 시합을 시작합니다.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1월 22일(목) 오후 4시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본당 ME 모임

1월 25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대표부부 선출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 창세기 성서모임 봉사자 모임

1월 27일(화) 저녁 미사 후 교육관 106호실

◆ 성당 마스터 키를 반납하실 분은 사무실로 반납해 주십시오.

**1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센리엔드로반     | 1월24일(토)6:30 | 신우현빈첸시오덕        |
|    | 센리엔드르반     | 1월24일(토)5시   | 정진희대례사덕         |
|    | 실버반        | 1월24일(토)2시   | 파운더스룸           |
| 2  | 프리몬/S반     | 1월25일(일)6시   | 유인웅다윗덕          |
|    | 유니온반       | 1월25일(일)6시   | 이규주시몬덕          |
| 3  | 캐스트로밸리E/W반 | 1월31일(토)6시   | 허은희마리아덕         |
|    | 리치몬드/버클리반  | 1월24일(토)5시   | 조진행바실리오덕        |
|    | 알버니A/B반    | 1월24일(토)6시   | 이영길안드레아덕        |
| 4  | 알버니A/B반    | 1월31일(토)6시   | UC Village Room |
|    | 라스모어반      | 1월23일(금)6시   | 최상철스테파노덕        |
|    | 콩코드반       | 1월24일(토)6시   | 양우선세례요한덕        |

◆ 유럽성지순례 모집

일시 : 4월 19일(일)~ 5월 1일(금) 12박 13일

지역 : 이스탄불, 아시시, 로마,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에

순례비용 : \$3,401(기사/가이드의 팁, 순례 중 물, 식당에서의 물 포함)

예약금 : \$1,501(Check 또는 Money Order)

신청마감 : 1월 25일(일) 30명 선착순

연락처 : 이 레이몬드 510-688-0157

◆ 성탄 때 봉헌하신 성경쓰기노트를 사무실에 오셔서 상품과 함께 찾아가십시오.

◆ 세금보고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아네스(1/21) : 이선영, 김옥순, 이윤정, 황현숙, 이명란, 김순이, 한경화, 김숙자, 변혜수, 이현주, 김혜숙

**주일학교 소식**

- 1월 25일 : Sunday School 개학

**안국학교 소식**

- 1월 24일 : 미술특강